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7월 3주~7월 4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프로젝트 정보

○ [인프라] Getaci 유료도로 투자자 확보 난항, 정부 입찰구조 재편 추진¹⁾(Bisnis, 7/13)

- 공공사업부는 재무부와 함께 Getaci 유료도로 사업의 입찰구조 재편을 검토 중. 반복된 입찰에도 투자자 유치에 실패한 가운데, 공공사업부 도로총국 Dedy Gunawan 유료도로 국장은 예상 교통량 변화와 최근 거시경제 여건으로 사업 타당성이 저하되었다고 설명
- 정부는 투자 타당성을 재산정하는 한편, 입찰 유지 여부와 사업 구조 재편 방안을 검토 중. 검토에는 약 1년이 소요되며, 최종 평가는 '27년까지 이어질 전망
- Getaci 유료도로는 서부자바 171.4km, 중부자바 35.2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입찰구조 개편을 통해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

○ [인프라] 프라보워 대통령, Danantara에 對싱가포르 전력 거래 사업 추진 지시²⁾(Antara, 7/6)

- 프라보워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합의한 국경 간 전력 거래 협력사업의 추진기관으로 Danantara 투자관리청을 지정. Danantara는 '35년까지 최소 2.4GW 규모의 청정전력을 싱가포르에 공급하고, 양국 투자 확대와 국가 재생에너지 잠재력 활용을 담당
- 양국은 '25년 Leaders' Retreat에서 발표한 전력 거래 협력을 재확인, 디지털 경제 · 디지털 인프라 · 사이버보안 · 식량안보 · 공급망 · 국방 · 교통 · 관광 · 교육 · 청년 분야로 협력을 확대. 프라보워 대통령은 동 협력이 양국 및 동남아시아의 안정과 성장,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13/45/1987547/proyek-tol-getaci-sulit-dapat-investor-pemerintah-restrukturisasi-paket-lelang>
2) <https://en.antaranews.com/news/421668/prabowo-assigns-danantara-to-implement-singapore-power-deal>

○ [인프라] 프라보워 대통령, 바탐을 글로벌 해양·투자 허브로 육성³⁾(The Jakarta Post, 7/8)

- 프라보워 대통령은 바탐을 해양물류·제조·투자 중심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고, 항만 시스템을 산업단지, 대규모 데이터센터, 국제 해운망과 연계해 공급망 강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추진. 또한 산업 고부가가치화, 인프라 확충, 규제 개선 및 공공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
- 정부령 제25/2025호를 기반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토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투자환경을 개선했으며, '25년 투자실적은 39억불(Rp69.3tril), '26년 1분기는 9.8억불(Rp17.48tril)로 전년 동기 대비 102.85% 증가
- 정부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위험기반 규제, 통합 인프라를 바탕으로 바탐을 국가 투자개혁 시범지역으로 육성할 계획

○ [인프라] 美 Latitude Energy, Danantara와 석탄 가스화 사업 협력⁴⁾(US Embassy, 7/10)

- 미국 기술기업 Latitude Energy는 PT Danantara Development Management Fund를 통해 Danantara Indonesia와 TRIG 기술 기반 석탄 가스화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 동 사업은 저열량 석탄을 합성가스로 전환,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감축 및 에너지 안보와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목표
-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관은 동 협약이 양국 에너지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미국 기술을 활용한 장기적인 경제성장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고 밝힘. Danantara는 국내 석탄자원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Latitude Energy는 기술 지원과 사업 운영, 장기 투자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첫 사업 거점으로 육성한 뒤 동남아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

3) <https://www.thejakartapost.com/business/2026/07/08/prabowo-touts-batam-as-indonesias-next-global-maritime-investment-gateway>

4)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605/45/1978749/kementerian-pu-ungkap-kelanjutan-proyek-tl-gtaci-hingga-gilimanuk-mengwi#goog_rewarded

○ [WIE] 발리 WIE 사업 본격화, 환경관리 전환 가속⁵⁾(Tempo, 7/14)

- 정부홍보청 Muhamad Qodari 청장은 발리 폐기물 에너지화(WTE) 사업이 인도네시아 환경관리 체계 전환의 핵심 사업이라고 밝힘.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매립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공급 확대 목표
- 정부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대응이 지연될 경우 주요 매립지가 '28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 Denpasar와 Badung 지역에서는 하루 약 1,600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 가운데 72% 이상이 처리 없이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
- Danantara는 이달 초 Denpasar Raya WTE 시설 건설에 착수, '27년 말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 이동식 화격자 소각기술⁶⁾을 적용, 하루 최대 1,500톤 처리 및 폐기물 발생량 80~90% 감축 목표

2. 주요 기업 · 기관 동향

○ [현지기관] Pertamina · Pupuk Indonesia, 에너지 · 식량 안보 강화 위한 전략적 협력 추진⁷⁾(CNN Indonesia, 7/1)

- PT Pertamina와 PT Pupuk Indonesia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비료산업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PT Pertamina Simon Aloysius Mantiri 사장은 이번 협력이 Prabowo 대통령의 Asta Cita 비전 실현과 에너지 · 식량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 또한 Pertamina는 Dual Growth Strategy⁸⁾를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 한편 PT Pupuk Indonesia Rahmad Pribadi 사장은 양사의 협력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언급

5) <https://en.tempo.co/read/2113570/indonesia-says-bali-waste-to-energy-project-marks-environmental-shift>

6) 이동식 화격자 소각기술 : 화격자를 따라 폐기물을 자동 이송, 고온으로 연소하는 폐기물 소각 방식

7) <https://www.cnnindonesia.com/ekonomi/20260701171202-625-1375639/pertamina-pupuk-indonesia-sinergi-perkuat-ketahanan-energi-dan-pangan>

8) Dual Growth Strategy : 기존 에너지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저탄소신에너지 사업 육성을 병행하는 중장기 성장전략

○ [현지기관] HKI, 러시아 기업 대상 투자 유치 지원 확대⁹⁾(Kompas, 7/8)

- 인도네시아 산업단지협회(HKI)는 INNOPROM 2026에서 러시아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용지 확보, 입지 선정, 산업단지 운영사 협의 및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방침. Akhmad Maruf Maulana HKI 회장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 대규모 내수시장, ASEAN 내 전략적 입지와 규제개혁을 인도네시아의 주요 투자 강점으로 소개
- HKI는 러시아 산업클러스터·테크노파크·경제특구협회와 MoU 체결 및 투자 유치, 기업정보 교류, 공동사업 발굴 및 역량 강화 분야에서 협력 확대 중
- HKI는 동 협력이 제조업, 산업 고부가가치화, 기술, 물류, 에너지 및 산업단지 분야의 신규 투자 유치 촉진과 더불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국부펀드] 英 前총리, Danantara 투자 관심¹⁰⁾(Kumparan, 7/8)

- 영국 전 총리 Tony Blair는 Danantara 투자관리청(BPI Danantara)을 방문해 Rosan Roeslani 청장과 면담. Rosan 청장은 이번 방문이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
- Rosan 청장은 Danantara가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투자의 주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 Danantara는 해외 자본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역할을 지속하며 투자 유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

○ [현지기관] 토지은행, 올해 신규 관리부지 최대 35,000ha 확보 목표¹¹⁾(Bisnis, 7/12)

- 토지은행은 올해 최대 35,000ha 규모의 신규 토지 관리권 확보를 추진. 토지은행 농지개혁 담당 Syafran Zamzami 부청장은 동 계획이 정부령 제64/2021호에 따른 농지개혁 정책 이행의 일환임을 밝힘
- 현재 토지은행은 35,000ha의 토지 관리권을 보유 중이며, 목표 달성 시 관리면적은 70,000ha로 확대 예정. 현재 농지개혁 대상 토지는 11,700ha로,

9) <https://money.kompas.com/read/2026/07/08/094400926/hki-siap-fasilitasi-investasi-rusia-di-indonesia-dari-lahan-hingga-perizinan>

10) <https://kumparan.com/kumparamnews/kunjungan-tony-blair-ke-danantara-ungkap-minat-tinggi-investor-asing-ke-ri-27kXu7230b>

1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12/45/1987417/bank-tanah-bidik-kelahan-baru-hingga-35000-ha-lahan-tahun-iri>

전체 토지자산의 34%가 12개 주 20개 지역에 배정됨

- 토지은행은 토지 공급 기반 확보와 농지개혁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법인으로, '25년 말 총자산은 1.9억불(Rp3.37tril)을 기록하며 '24년 말 1.6억불(Rp2.9tril) 대비 16.3% 증가

○ [현지기관] Jababeka, 국가 산업단지위원회 역할 명확화 필요성 제기¹²⁾(Bisnis, 7/10)

- PT Kawasan Industri Jababeka(KIJA)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산업단지위원회(DKIN) 설립과 관련, 산업단지 개발에는 공간계획, 인프라, 유틸리티, 투자 및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가 연계되는 만큼 부처 간 정책 조율이 중요하다고 밝힘. 또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범부처 협력 강화 노력은 환영한다고 언급
- 다만 DKIN은 기존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권한과 역할을 갖춘 조정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며, 투자 저해 요인을 해소할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
- 아울러 산업단지와 도로·항만·에너지·용수 등 기반시설 간 연계성 강화와 산업단지 부지 공급, 공간계획 관련 현안 해결 촉구 및 미래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의 중요성도 언급

○ [국부펀드] Danantara, WTE 2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¹³⁾(Danantara, 7/13)

- PT Danantara Investment Management와 PT Daya Energi Bersih Nusantara는 인도네시아 폐기물 에너지화(WTE) 2차 사업의 권역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이번 사업은 20개 시·군 8개 권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최종 사업자는 관련 조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
- 권역별 우선협상대상자는 ① Medan Raya(SUEZ-IAN 컨소시엄), ② Bekasi Regency(Everbright Cemerlang Energy 컨소시엄), ③ Lampung Raya(Bumi Biru Indonesia-SUS Inoplas), ④ Serang Raya(Masa Depan Energi Indonesia-Chandra Waste Energy BGE), ⑤ Semarang Raya(Veolia), ⑥ Surabaya Raya(Mentari Citra Lestari-Bakrie Power SUS 컨소시엄), ⑦ Bogor Raya 2(MPM-CEVIA 컨소시엄),

12)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10/47/1987096/pemerintah-siapkan-dewan-kawasan-industri-ini-saran-jababeka-kija>

13) <https://www.danantaraindonesia.co.id/media-center/press-releases/wte-batch-ii-selected-partners>

⑧ Yogyakarta Raya(Cakra Energi Lestari-Pertamina NRE-Tianjin CITICC 컨소시엄)

- Danantara는 동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WTE 시장에 대한 투자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

3. 정부 정책동향

○ 에너지광물자원부, '26~'35 국가에너지종합계획 9월 수립 목표¹⁴⁾(Antara, 7/3)

-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6~'35 국가에너지종합계획(RUEN¹⁵⁾)을 '26년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힘. 에너지광물자원부 Ahmad Erani Yustika 사무차관은 세마랑과 파푸아 등 약 6개 지역에서 공청회 및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법정 기한에 앞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
- 동 계획은 '25년 10월 개정된 국가에너지정책(KEN¹⁶⁾)에 따라 향후 10년간 에너지 수급과 에너지 전환 전략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대통령령을 통해 시행될 예정
- 또한 국가 에너지 수요와 자원 잠재력, 공급 전략, 탈탄소화 목표, 투자 및 재원조달 전략, 7개 권역별 에너지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할 계획

○ 투자 및 다운스트림산업부, 호주 투자 유치로 산업 고부가가치화·녹색경제 추진¹⁷⁾(Antara, 7/1)

- 투자 및 다운스트림산업부 Todotua Pasaribu 차관은 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A-CEPA)을 기반으로 양질의 투자 유치를 확대해 산업 고부가가치화와 녹색경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또한 6월 30일 시드니에서 열린 인도네시아-호주 비즈니스 서밋을 계기로 호주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Pure Battery Technologies의 전구체 양극재(PCAM) 생산시설 투자도 추진 중
- 아울러 BCI Minerals의 산업용 소금 산업 고부가가치화 투자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군도 해상항로 II(ALKI II)를 활용한 역내 물류 연결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배터리 산업

14) <https://en.antaranews.com/news/421433/indonesia-targets-new-national-energy-plan-by-september-2026>

15) RUEN (Rencana Umum Energi Nasional) : 국가에너지종합계획

16) KEN (Kebijakan Energi Nasional) : 국가에너지정책

17) <https://en.antaranews.com/news/421193/ri-seeks-australian-investment-to-drive-downstreaming-green-economy>

육성,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 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

○ **인나-UAE, 투자·관광 등 협력 확대 추진**¹⁸⁾(Antara, 7/2)

- 인도네시아와 UAE Ras Al Khaimah 토후국은 투자, 관광, 고용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 Judha Nugraha 주UAE 인도네시아 대사는 Ras Al Khaimah 통치자 겸 UAE 최고연방평의회 의원 Sheikh Saud bin Saqr Al Qasimi와의 면담에서 기업인 간 교류 확대와 관광·호텔산업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공급, 교육 및 보건 분야 협력 의사를 전달
- 주아부다비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이번 면담이 '26년 수교 50주년을 앞둔 양국 협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 또한 제조업·관광·부동산·산업단지 분야의 성장 거점인 Ras Al Khaimah와 협력을 확대해 UAE 7개 토후국과의 생산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印-中, 투자·수출 확대 위한 TCIP 협력 강화**¹⁹⁾(DDTC, 7/4)

- 인도네시아와 중국 정부는 투자, 교역 및 산업단지 개발 확대를 위해 양국 산업단지 협력사업(TCTP, Two Countries Twin Park)을 강화하기로 합의. 경제조정부 Ali Murtopo Simbolon 상업·디지털경제 조정차관은 합의된 투자사업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추가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이라고 설명
-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국 상무부, 푸젠성 정부는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와 Batang 통합산업단지(KITB) 간 대표사업의 조기 추진에 합의
- Ali 차관은 동 협력을 통해 신규 투자와 교역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인도네시아-중국 간 경제 연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인나싱가포르, 26건의 협력 성과 발표**²⁰⁾(idnfinancials, 7/6)

-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에너지, 교역, 투자, 디지털 인프라, 핀테크 등 전략

18) <https://ambon.antaranews.com/berita/334499/ri-ras-al-khaimah-uea-jaiaki-kerja-sama-investasi-hingga-pariwisata>

19) <https://news.ddtc.co.id/berita/nasional/1820577/perkuat-kerja-sama-ri-china-buka-peluang-investasi-dan-ekspor-baru>

20) <https://www.idnfinancials.com/id/news/65677/ri-singapura-teken-26-kerja-sama-libatkan-danantara-dan-semcorp>

분야에서 26건의 협력 성과를 발표. 프라보워 대통령과 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 간 협력 18건과 민간 협력 8건을 추진하기로 합의

- 양국은 국경 간 전력 거래 로드맵 마련, 공급망 회복력 강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 및 국방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Danantara는 Keppel, Singapore Energy Interconnections, Sembcorp와 각각 MoU를 체결
- 또한 PT Telkom Indonesia와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와 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간의 협력 등 연구·혁신,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예정

○ 싱가포르 총리, 對인니 장기 투자 의지 재확인²¹⁾(Beritasatu, 7/6)

- 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는 인도네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며 장기 투자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힘. 투자조정청(BKPM)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5년 174억불(Rp310.3tril)로 최대 투자국을 유지했으며, 홍콩 106억불(Rp189.0tril), 중국 75억불(Rp133.7tril) 순으로 집계
- Wong 총리는 싱가포르 투자가 산업 고부가가치화, 디지털 인프라 확충, 경제활동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중이며, 인도네시아 시장의 투자 매력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 또한 Batam·Bintan·Karimun(BBK) 경제권과 올해 10주년을 맞은 Kendal 산업단지를 양국 전략적 협력의 대표 사례로 제시

○ 印-加, 인프라 협력 확대 추진²²⁾(Tempo, 7/9)

- AHY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장관은 캐나다를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협력 파트너로 평가하고, 양국 간 인프라 및 지역개발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 또한 지역 간 연결성 강화와 지역 경쟁력 제고, 균형발전 등을 위해 인프라 개발을 지속 추진 중
- AHY 장관은 Jess Dutton 주인도네시아·동티모르 캐나다 대사와 인프라, 투자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국 관계가 기존 정부 간 협력을 넘어

21) <https://www.beritasatu.com/ekonomi/3008608/pm-singapura-tegaskan-komitmen-investasi-jangka-panjang-di-indonesia>

22) <https://en.tempo.co/amp/2112673/indonesia-highlights-canada-as-key-infrastructure-partner>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발전 중이라 평가

- 양측은 인도네시아-캐나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CA-CEPA)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논의

○ 美 DFC, 인니 원자력·금융 분야 투자 검토²³⁾(Antara, 7/8)

-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인도네시아에서 원자력과 금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기회를 검토하는 한편, 인프라, 교통, 항만 및 핵심광물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 Caroline Vik 최고정책책임자(CPO)는 교통·인프라·항만 개발과 핵심광물 채굴·가공 분야에서도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DFC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미국의 외교정책과 전략적 경제 발전을 지원하며, 의회의 재승인을 거쳐 투자 여력을 600억불(Rp1,070tril)에서 2,050억불(Rp3,656tril)로 확대. Vik 최고정책책임자는 6.19~25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순방했으며, 논의는 에너지, 기술, 핵심광물, 공급망, 제약 및 전략·디지털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DEN, 화석연료 퇴출보다 에너지 안보 우선²⁴⁾(Antara, 7/8)

- 국가에너지위원회(DEN) Satya Widya Yudha 위원은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 퇴출보다 탄소배출 저감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힘. 석탄화력발전소에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적용해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은 유지할 계획
- Satya 위원은 이러한 정책 기조가 조코위 정부부터 이어져 왔으며, 일부 유럽 국가가 겪은 에너지 수급 불안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 Bahlil Lahadalia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전력요금 안정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석탄을 에너지 믹스에 계속 포함할 방침이라고 재확인

23) <https://en.antaranews.com/news/421859/us-dfceyes-nuclear-finance-investment-in-indonesia>

24) <https://en.antaranews.com/news/421895/indonesia-prioritizes-energy-security-over-fossil-fuel-phase-out-den>

○ 인니 PFI, 최대 277억불 투자 유치 기대²⁵⁾(Antara, 7/8)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국제금융센터(PFI) 설립을 통해 166~277억불 (Rp300~500tril) 규모의 투자 유치를 기대. 재무부 금융부문 안정화 및 개발부문 Herman Saheruddin 총국장은 해당 규모는 정부의 예비 추산에 따른 것으로, PFI의 경쟁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
- PFI는 해외 금융기관과 글로벌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해외 은행의 지점 설립과 기업의 현지 법인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국가전략사업에 필요한 장기 자금조달 기반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 정부는 GMT²⁶⁾ 등 국제 조세 기준을 준수하는 가운데 기업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자금세탁과 투자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감독체계를 적용할 방침

4. 녹색산업 동향

○ PLN, Jasa Marga 고속도로 802km 구간에 태양광발전소 구축 추진²⁷⁾(Bisnis, 7/3)

- PT PLN은 PT Jasa Marga가 운영하는 802km 규모의 고속도로 구간에 0.5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PT PLN Darmawan Prasodjo 사장은 이번 사업이 에너지 전환과 국가 전력망 강화를 위한 Super Technology Green Corridor 개발의 일환으로, 에너지저장장치를 함께 구축해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
- 또한 발리 만다라 고속도로에는 풍력발전소도 함께 조성하고, 국유지 활용을 통해 전력 공급 원가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힘. Darmawan 사장은 동 사업이 100G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 에너지 주권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

○ Danantara, Denpasar Raya PSEL 연간 폐기물 50만톤 처리 가능²⁸⁾(Bisnis, 7/8)

- PT Danantara Indonesia는 Denpasar Raya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PSEL)을 통해 연간 50만톤 이상의 폐기물 및 발리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40%를

25) <https://en.antaranews.com/news/421939/indonesias-pfi-could-attract-up-to-us277-billion-in-investment>

26) GMT : 글로벌 최저한세

27)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03/44/1985231/pln-bakal-bangun-plts-di-802-km-jalan-tol-jasa-marga-tambah-kapasitas-05-gw>

2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08/44/1986472/danantara-psel-denpasar-raya-mampu-kelola-50000-ton-sampah-per-tahun>

처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 Pandu Sjahrir 최고투자책임자는 동 시설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에너지 공급, 친환경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시

- 동 시설은 EU 산업배출지침 기준에 따라 설계됐으며, 매립지 배출량 최대 80% 감소 및 연간 64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 또한 약 10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청정에너지 생산 계획
- 총사업비는 약 1.7억불(Rp3tril) 규모로, 1,208개의 친환경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최종처리장 부지 확보 수요도 최대 80%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

○ 신수도 관련 현지 언론보도 종합

- OIKN, 신수도 개발은 경제 전환 중심으로 추진²⁹⁾(Antara, 6/29)
 - 신수도청(OIKN) Mia Amalia 기획·토지 담당 차장은 신수도 (IKN) 개발이 경제 전환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동칼리만탄주를 비롯한 주변 지역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 중. 또한 정부핵심구역(KIPP)을 비롯한 동칼리만탄주와 칼리만탄 전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속 점검할 계획
 - 동칼리만탄주는 신수도 개발 이전보다 약 3.7% 높은 경제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수도 개발은 동칼리만탄주의 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중. 또한 산업 고부가가치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생산구조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신수도와 인도네시아 경제 슈퍼허브(SEN)를 기반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도모할 계획
- 신수도청, 2단계 개발로 지역경제 성장 기대³⁰⁾(Antara, 7/5)
 - 신수도청(OIKN)은 신수도 2단계 개발사업이 주변 지역의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1단계 개발('22~'24) 경제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확대를 전망
 - 핵심 개발지역인 Penajam Paser Utara는 약 19.9%, 동칼리만탄주는 약

29) <https://kaltim.antaranews.com/berita/263169/otorita-sebut-pembangunan-ikn-diarahkan-menuju-transformasi-ekonomi>

30) <https://kaltim.antaranews.com/berita/263377/otorita-ikn-optimis-pembangunan-tahap-2-dongkrak-ekonomi-wilayah>

3.7%의 경제성장을 기록, 정부 재정지출과 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업 성장으로 지역내총생산(GRDP³¹⁾)이 증가. 또한 지역 공급망 강화와 지역 기업 참여 확대,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제 전환 촉진 및 Kutai Kartanegara · Balikpapan · Samarinda 등과 연계,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 목표

- 신수도청, 6.6억불 규모 IKN 7개 사업 입찰 완료³²⁾(Bisnis 7/7)

- 신수도청(OIKN)은 약 6.6억불(Rp11.8tril) 규모의 신수도 2단계 개발사업 7건에 대한 입찰을 완료. 동 사업은 '25~'27년 국가예산을 재원으로 한 다년도 계약 방식으로 추진되며, 계약 체결을 거쳐 공사에 착수할 예정
- 사업 대상은 국민협의회, 국민대표의회, 지역대표의회, 헌법재판소, 사법위원회, 대법원, 모스크 등 입법·사법시설 건설사업으로 구성. 낙찰 기업은 PT Hutama Karya, PT PP, PT Adhi Karya, PT Waskita Karya, PT Wijaya Karya Bangunan Gedung 등으로 확정됐으며, 신수도 핵심 입법·사법 기능 확충이 본격화될 전망

31)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지역내총생산

32) <https://ekonomi.bisnis.com/read/20260707/45/1986304/lelang-7-proyek-di-ikn-senilai-rp118-triliun-rampung-ini-daftarnya>

□ 중점 프로젝트 동향

① BSD신도시 주거단지

< 사업 개요 >

- (협력사)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참여기업) 대우건설, 대한주택협회 회원사 JV
- (사업비) 약 9,658억원
- (사업내용) 46.6ha에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955, 샵하우스 387) 건설, 분양
- (추진현황)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 1차(~'25.8) 및 2차 연장(~'26.2.15) - 토지가 협상, 자체 FS 완 - FS 완료, 주주간협약 문구 협의중
- ('26년 센터목표) 투자 의결 ('26.8월 예상)

○ (주요동향) 대우건설-SML, SHA 법률의견 교환중

② 칼리만탄 지속가능 우드펠릿 공급망 구축

< 사업 개요 >

- (원개발사) Innovative Energy Solution (IES)
- (참여기업) 남동발전 (주주 및 Offtaker) 등
- (사업비) 미정
- (사업내용) 연60만톤 우드펠릿 생산설비 건설·운영, 남동발전 등에 장기 공급
- (추진현황) 조림지 토지용도 허가 취득 ('23.5) - 원개발사 IES (싱가포르) 설립 ('24.10) - 인니 자회사 설립 ('25.1) - KIND 사전검토위 통과 (사업개발비 및 MOU 체결 승인) ('26.3)
- ('26년 센터목표) 본FS 지원 및 실사 / 결과에 따라 투자심의 부의

○ (주요동향) 대아이앤씨, KIND 자금지원 FS 평가 발표 준비

③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아르고 마농갈 (Argo Manunggal, 마루베니와 산단 성공적개발사례 보유)
- (참여기업) Gaya (GS건설 싱가포르법인), Beijing Liando (중국계 디벨로퍼)
- (사 업 비) 612백만불 (1, 2단계 921ha 기준)
- (사업내용) 수방 지역* AMG가 원소유주와 독점 가계약중인 1,694헥타르 부지에 전기차 제조업 특화 산업단지를 총 4단계에 걸쳐 조성, 분양 통해 Exit
- (추진현황) `25.2 AMG-Gaya 전반적 협력 MOU 체결 - `25.10월 GS 사전사업심의 통과, DD비용 승인 - `25.12 정부에 의한 사업순연 - GS 자체 DD 진행중
- (`26년 센터목표) DD 완료 및 투자 의결 (4분기)

○ (주요동향) GS 발주 DD자료 KIND 공동 분석중

④ 까얀1 수력발전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인니전력공사(PLN)
- (참 여 사) 원개발사(KHE), 삼성물산, 수자원공사(예정), 스미토모상사(미정) 등
- (사 업 비) 약 27억불 (EPC 약 15억불)
- (사업내용) 900MW 수력발전 댐 건설후 30년간 운영, 전력판매 수익창출
- (추진현황) 원개발사 제반 인허가 취득 (~`20) - 중기전력계획(RUPTL) 동사업 포함 (`25.5) - 삼성물산-KHE JV DPT 등록 (`25.12) - `26.3 KIND FS 신청
- (`26년 센터목표) FS 지원대상 선정 (完) / FS 수행

○ (주요동향) KIND 컨설팅 FS 용역사 용역수행 개시

⑤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투자의결 完)

< 사업 개요 >

- (사업주) SM플러스 (시나르마스그룹 계열사) - 한투그룹, KIND, S펀드 출자 싱가포르 SPC
- (참여기업) LG CNS (현지법인 통해 장비공급·설치, 운영, 직접사용 및 재판매)
- (사업비) 2.9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MW,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추진현황) 본사 투자의결('25.9.15) / 골조준공식 개최('26.6) / 수요가 협상중
- ('26년 센터목표) 준공 및 운영준비 완료 / 후속안건 발굴

○ (주요동향) 공사 및 수요가 협상 계속 (변동 없음)

② 협력센터 운영 보고

○ 주요기업, 기관 면담 ('26.7월 3-4주차)

- 네트워킹 5건 : 삼성물산 상사부문 · KDB 인니법인 · GS건설, Winners Consulting,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삼성물산 상사부문 본사, 서울대학교 건강검진센터
- 사업개발 7건 : 삼성물산 · 철도공단 · Plenary · 호주대사관(MRT4), GS건설 (수방산업단지), 대우건설 · 시나르마스랜드, KIND 본사 · KCN, 칼리만탄 지속가능 우드펠릿 FS, 코레이트자산운용(신수도 공무원주택), ST그룹 (FSU)
- 대관업무 3건 : 국토관(KIND FS 인도네시아 신청사업), 국토부 해외 건설정책과 출장단 · 현지진출 공기업 간담회,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인니 사업개발 방향 협의)